

7월 28일 우리나라 최고의 힐링문화를 제공하는 오대산 자연명상 마을이 문을 열었다. 오대산 대자연 속에 불교명상과 힐링문화의 절묘한 조화로 국민치유에 나설 OMV의 미래가 기대를 모은다.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공간, '옴뷔' 문 열다

특집탐방 오대산 자연명상마을(OMV)

5년간 준비 끝에 7월 28일 개원
편백나무 등 최고급 자재 사용
150명 수용, 가족 · 개인 수행

'쉬다' '먹다' '놀다' 기본 테마
열린 플랫폼, 명상 · 요가 가능
정원, 숲길 등 사색 공간 제공

평창=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민족의 영산으로 일컬어지는 오대산 자락에 국내 최고의 힐링 공간이 들어섰다. 7월 28일 개원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Odaesan Meditation Village, 옴뷔)이 그 곳이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7월 28일 오대산 초입에 위치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

2014년부터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준비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의 면모는 화려하다. 오대산 국립공원 초입의 대지 99,174㎡에 9,917㎡의 건평으로 100실 규모의 숙박, 문화, 체험 시설을 자랑한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은 단순한 명상시설이 아니다. '쉬다', '먹다', '놀다'라는 기본 테마로 이루어진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은 스스로 몸으로 느껴 쉼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곳이다.

개인 · 단체 힐링 숙소 '가람채'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곳은 숙소인 '가람채'다. 가람채의 가람은 '절'의 옛말로 2층의 목재건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컨셉으로 편백나무의 명상공간이 함께 마련돼 있다. 또 해와 달, 별로 이름 붙여진 단독빌라 형태의 별채는 하늘을 향해 열린 공간을 선물한다.

총 150여 명이 수용 가능하며 개인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1인실을 갖춘 숙박시설이 총 80곳이 준비됐다. 이밖에 가족단위 숙박이 가능한 2인실과 복층형태의 시설도 마련됐다. 모든 시설마다 수행이 가능한 작은 명상실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통수행 · 명상 공간 '동림선원'

대중들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명상홀인 '동림선원(東林禪院)'이 있다. 육송으로 만들어진 160평의 웅장한 전통한옥으로, 마음을 알아차리고 밝히는 수행공간이다. 선원의 명칭인 '동림'은 햇살이 쏟아지는 동쪽의 맑은 기운을 품은 사람들이 숲처럼 더불어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오대천을 타며 생활 속에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힐링공간인 '성적당(惺寂堂)' 등도 세워졌다.

독서 · 차 즐기는 문화시설 다양해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는 명상을 통한 힐링뿐만 아니라 독서와 차 등을 통한 다양한 문화생활도 영위할 수 있다.

먼저 '비움채'로 이름 붙여진 '웰컴센터'에는 북카페가 있다. 또 태백산맥, 아리랑 등의 저서로 한국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조정래 작가가 명예촌장으로 인문학 지혜를 나누는 '조정래 문학관'도 위치한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맞은 편에는 오대산사 박물관마을이 함께 조성돼 있으며 왕조실록의궤박물관, 성보박물관, 한강 시원지체험관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문화체험 및 견학도 할 수 있다.

대자연 속 삶의 방식 선사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은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는 삶의 방식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식사 장소인 '수피다'는 모든 생명에 대한 감사와 건강한 삶을 기도하며 만들어진 채식단을 제공하는 웰빙식당이다.

이와 함께 오대광명탑이 세워질 '붓다의 정원', 주목나무로 화엄세계를 표현한 '깨달음의 정원', 사색의 공간인 '지혜의 정원', 한강시원지 첫물이 모인 강가에 일품송이 함께 들어선 '아리야 숲', 소나무숲 속에 위치한 '비밀의 정원', 오대산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바람의 빛깔길' 등 정원과 숲길도 마련됐다.

집중명상 등 알찬 소프트웨어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은 대자연 속에서의 공간을 바탕으로 다양한 힐링 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생활 속 깨어 있음을 알아차리는 '자애와 마음챙김 명상', 우주를 품는 '걷기 명상', 생명과 더불어 행복해지는 '자연명상', 하루를 느림으로 거두는 '요가' 등이 기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 토요일에는 문화재 타임랩스, 일요일에는 착한음식 쿠킹클라스, 전통다도체험 등 인문강좌도 이어진다. 매월 1회 인문학 강의 및 지혜문답, 선지식과 함께하는 선문답과 집중수행도 함께 병행된다.

자연명상마을 원장 인광 스님은 "불교 내 참선수행과 함께 다채로운 명상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또 스님과 대작가와 만남을 비롯한 인문학적인 체험으로 스스로의 삶에 '쉼'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사상을 담은 숙소동 디자인.


식당 '수피다' 실내모습.



명상홀 '동림선원' 일주문.


명상홀 동림선원 실내모습.

"불교 넘은 수행 1번지, 열린 플랫폼으로 일굴 것"

[인터뷰]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1500여 년 전, 깨어있는 사람들이 오대산을 열었습니다. 그후 세월을 이어 2018년 자연명상마을이 오대산에서 탄생합니다. 옴뷔는 자유로운 플랫폼이며, 명상으로 현대인들을 건강케 하는 힐링스테이의 산실입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사진〉은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의 개원을 앞두고 이 곳이 불교 수행 뿐만 아니라 요가와 명상, 인문교육 등을 통한 국민 힐링공간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쉬며 먹고 즐기고 느끼면서 함께하는 모든 생활들이 자연명상이자 수행"이라며 "누구나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 삶의 기운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끝으로 "몸으로, 말씀으로, 생각으로 다른 것에 물든 습관들을 명상으로 치유해 행복을 담아가는 인연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 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천년의 향기 선물사,
그 시간속에 노닐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프로그램

날짜	시 간	일 정
1일차	13:00~14:00	접수 및 숙소안내
	14:00~16:00	문화재토크콘서트 -만세루 (다도,가야금,국악연주,불교강의)
	16:00~17:40	자유시간
	17:40~18:10	저녁공양
	19:00~20:30	탁본(석씨원류 등) -지장보궁
	21:00~	취침

날짜	시 간	일 정
2일차	06:10~06:40	아침공양
	06:40~07:30	숙소청소 및 울력
	07:30~09:00	문화재답사, 포행 등
	09:00~11:00	도예체험, 소조상 만들기, 벽화그리기, 서각체험, 대웅보전 미니어처 만들기 -지장보궁 및 주차장
	11:00~	소감문 작성 및 회향 -지장보궁

* 예불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행사일정 8/18~19, 9/15~16, 10/13~14, 10/27~28 주말 1박2일 / 참가비 2만원
9/29 당일(경판이운식)

석씨원류 복원불사 안내

'석씨원류'란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기록한 판각입니다. 석씨원류 판각은 조선시대 삽화의 걸작 가운데 걸작이며, 우리나라 미술사 특히 판화의 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연구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학과 수선의 도량 선운사는 불기2562(2018)년 4월 29일부터 3년에 걸쳐 망실 및 파손된 49판 석씨원류 판본을 복원합니다. 석씨원류 판본 복원불사에 많은 접수바랍니다.
* 복원불사 문의 및 접수 : 063-561-1422 * 계좌번호 : 농협 351-0820-4080-03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문화재청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사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팀
문 의 063-561-2711